

물과 물을 이어주는 두꺼비 이야기

(사)두꺼비친구들 활동을 중심으로

관련단체
코너
2
River & Culture

환경지표종 양서류



박 완 희 | (사)두꺼비친구들
사무처장
(pwh5505@hanmail.net)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개구리를 양서류(兩棲類)라 칭한다. 개구리는 물과 물을 오고가며 살아가는 동물이다. 올챙이 시기에는 아가미호흡을 하고 성체가 되어서는 피부호흡과 허파호흡을 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오염되거나 변화하면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양서류를 환경지표동물이라고 부른다.

양서류는 최근 전 세계적으로 위협에 처해있다. 서식지 훼손, 기후 변화, 양서류 질병, 각종 화학물질, 인간의 무분별한 포획문제에 봉착하고 있어 세계자연보호연맹(IUCN)은 양서류 종의 3분의 1이 멸



<http://cafe.daum.net/toadfriends>

찰청, 상가에 둘러싸여 있어 예전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찾아볼 수 없다. 두꺼비 주요 서식지인 구룡산은 주변 지역의 개발과 늘어난 등산객으로 인해 심각한 훼손 위기에 처해 있다. 반면 조성된 지 6년이 지난 두꺼비생태공원은 조금씩 생태계가 되살아나고 있다. 개발 이전에 비해 개체수는 현저히 줄어들었지만 두꺼비들은 올해도 생태공원을 찾아 산란하였다. 도심 속 생태복원의 사례로 전국 각지에서 두꺼비생태공원을 찾는다. 환경부에서는 자연생태복원 우수마을로 지정하기도 하였다.

2년 가까운 갈등과 대립을 넘어 상생의 협약 체결을 이끌어 낸 두꺼비 살리기 운동은 시민참여형 생태공원 설계와 조성과정을 거쳐 구룡산 두꺼비서식지 보전운동으로 발전하였으며, 지금은 두꺼비생태공원을 중심으로 생태공동체 마을만들기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다. 운동의 주체도 초기 환경단체 중심에서 택지개발이 완료되고 입주가 시작되면서 지역주민들과 환경단체의 협력 구조로 확대되었다. 그리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마을단위 거버넌스가 새롭게 구성, 운영되면서 새로운 주민참여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으며 두꺼비 마을신문, 두꺼비양상블, 두꺼비생명한마당 등 주민들의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두꺼비생태공원이 공동체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으며, 두꺼비의 서식지를 빌려 살고 있는 사람들이 두꺼비와 공존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도심 한가운데 조성된 두꺼비생태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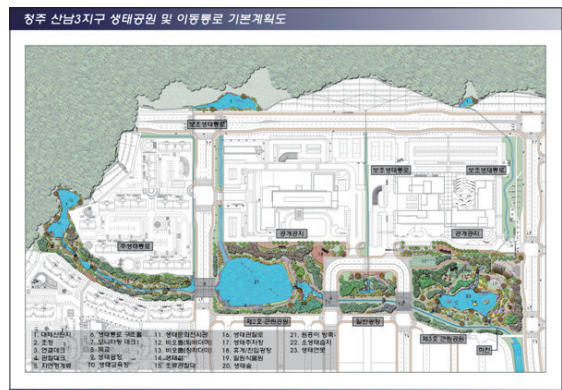


습지를 포함한 39,600m²(약 12,000평)의 두꺼비생태공원 내

에 서식가능한 적절한 개체수, 지속가능할 수 있는 존속가능 개체수가 어느 정도인지 아직 모른다. 두꺼비생태공원은 올해로 공원이 조성된 지 6년째이다. 참나무 같잎이 떨어져 부엽토로 완전히 분해되지도 않는 그런 시간이 지났을 뿐이다. 옮겨 심은 나무들이 이제야 뿌리를 내린 것 같다.

두꺼비생태공원은 자연을 그대로 보존한 생태공원이 아니라 대부분이 새로 식재되고 가꾸어진 생태복원지이다. 또한 일부 출입통제구역만이 있을 뿐 제대로 된 완충구역이 없이 주변 건물들로 둘러싸인 공원이다. 그러하다보니 주변의 수많은 생태교란 요인으로부터 안전할 수 없는 구조이다. 생태공원이라고 하지만 법적으로는 도시의 일반 근린공원이자. 그러나 주민들과 환경단체가 힘을 모아 척박한 공간에서 생명의 바람을 불어넣고 있는 것이다.

물과 물의 연결은 곧 산줄기, 물줄기의 연결



두꺼비생태공원 기본계획 수립 (2005)

두꺼비생태공원의 기본 설계에서 핵심은 산줄기, 물줄기의 연결이었다. 결국 양서류인 두꺼비가 살아가기 위한 조건은 필수불가결한 조건이었다. 생태통로를 조성하여 작은 습지들을 연결하고, 두꺼비의 원 서식지인 구룡산과 이를 다시 연결하는 노력이 진행되었다.

아파트단지 사이의 생태통로를 따라 고라니, 너구리 등 야생동물들이 이동하고 있으며 새로 조성된 두꺼비논과 습지에서는 북방산개구리, 한국산개구리, 참개구리, 청개구리 등 많은 양서류들이 살아가기 시작한다. 안타깝게도 숲 의존도

가 높은 두꺼비들은 구룡산 자락이 깎여 나가고 아파트와 법원, 검찰청이 들어서면서 그개체수가 많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현실적인 문제에 봉착하기도 하였다.

이에 두꺼비친구들과 주민들은 구룡산 사유지를 매입하여 두꺼비 서식지, 산란지를 복원하는 운동을 펼쳐 지난 2009년에는 1,009㎡의 포도밭을 매입하는 등 구룡산 트러스트 운동까지 진행하고 있다. 현재는 구룡산 난개발을 막기 위해 전원주택단지 개발을 반대하면서 10,000그루 구룡산 희망나무 프로젝트 활동을 펼쳐 약 4,000그루의 희망나무 모금이 이루어지고 있다.



시민성금으로 매입한 구룡산 포도밭

두꺼비 생태공동체 마을을 꿈꾸다

두꺼비생태마을에는 마을단위 주민자치조직으로 8개 아파트대표회의가 모두 참여하는 산남두꺼비생태마을아파트 협의회가 있다. 운영비용은 아파트별로 연 60만원의 분담금으로 해결하였다. 아파트 개별적인 문제 중심에서 마을, 공동체, 두꺼비, 생태환경, 보행환경, 교통안전의 영역까지 접근하게 되었다. 특히 4월 5일 식목일 행사, 5월 두꺼비생명만마당, 9월 두꺼비생명강좌 등 대부분의 주요사업을 환경단체와 아파트협의회가 협력을 통해 진행하였다. 아파트라는 폐쇄적 공동체가 열린 공동체로 변화발전하는 과정이었다. 또한 지역구 시의원·국회의원 간담회, 충북도교육감 초청간담회 등을 개최하여 산남두꺼비생태마을 만들기의 중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었다.



산남두꺼비마을신문 창간(2009.1)

아파트 주민간, 아파트와 아파트간, 아파트와 마을간 소통을 위한 홍보매체가 필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주민 중 마을신문을 직접 발행해 본 경험을 자를 초대 편집장으로 위촉하여 '산남두꺼비마을신문'을 창간하였다. 마을신문은 8개 단지 아파트에서 매달 10만원씩 분담금을 내고, 자발적 구독자와 마을 상가의 광고수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1일자, 15일자로 월 2회씩 6,000부를 발행하고 있다. 신문배달은 각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 도와주고 있다. 주부기자 3명으로 시작하였으며 두꺼비생태공원 소식을 비롯하여 마을주민들의 소소한 일들까지 소개하는 등 마을공동체신문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 이처럼 원흥이 두꺼비살리기 운동은 자연스럽게 두꺼비생태마을만들기를 슬로건으로 구체적인 풀뿌리 주민운동, 마을운동으로 진화하고 있다.

결국 두꺼비살리기 운동을 이끌고 있는 두꺼비친구들은 물과 물을 연결하며 양서류가 살아가는 생태도시 청주를 만들어 가고 있다.